



어린이

중학생을

위한

性教育

지침서

가르쳐 주세요

(제 5 회)

■ 鄭 東 哲

정동철 신경정신과의원장

“가르쳐 주세요”는 정신과 의사인 鄭東哲박사가 계속 집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박사는 어린 아들·딸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性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하나? 를 알기 쉽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사와의 상담은 전화 265-6568 정동철신경정신과의원으로 하면됩니다.



정직한 대화



아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출생에서 점차 성적 행동으로 이어져갈 것이다. 어머니의 질구를 통해 이 세상으로 낳아진 것도 그러하지만 도무지 어머니의 배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이다.

부모가 당황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필연적으로 부모의 성교 사실을 밝혀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것을 생략하고 구차한 속임수를 써야한다는 것도 좋은 기분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엔 사실성을 밝히는 것 이외에 또다른 걱정이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공연히 성교행위를 설명하므로써 그와 같은 행동을 하도록 자극하거나 용납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적당히 설명을 기피하므로써 사실을 은폐하면 그것을 알고 있을때에 비해 단연 문제가 적으리라 믿는 것이다. 분명히 자신의 아이는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대부분이란 점을 고려할때 결국 자연스런 대화가 막혀 버

리고 만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0대 남자의 80%와 여자의 50%가 친구를 통해 성교행위를 알게 되며 성적 대화가 부모와 이루어지는 경우는 10%이내라는 것이다. 결과로 문제가 뒤따른다. 친구의 성지식이 매우 단편적일뿐 아니라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부모와 성에 대한 대화가 없었던 자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첫째, 부모와 대화가 있었던 자녀에 비해 성교 체험이 빨라진다.

둘째, 정보를 잘못 갖게 되어 피임에 관해 무관심해 진다.

셋째, 임신과 성병을 갖게될 가능성이 커진다.

10대의 소년소녀의 순결문제와 임신, 그리고 성병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이와같은 결과가 예측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자녀와의 성적대화를 기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들은 부모와 자연스런 대화를 갖을 수 있을 때 훗날 이성과의 관계에서 역시 꾸밈없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그 필요성은 재언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방법과 시기이다.

언제부터 말해주는 것이 좋은가는 시간예정표를 제시할 수 없다. 아

이가 관심을 갖는 시기가 바로 말해 주어야 할 때라고 보면 된다. 알기를 원할 때 묻는 만큼 사실대로 대답을 해 주면 좋다. 구태여 앞질러 마치 강의식 설명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 빠를수록 좋겠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일 아이가 4~5살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부모가 유도할 필요가 생긴다. 「오 예쁜 우리아기 순이의 동생은 어디서 왔을까?」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 그대로를 알려준다는 원칙이다. 정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두번째 원칙이다. 반복된 질문에 언제나 진지한 태도가 세번째로 요구되는 원칙이다. 아울러 부모자신의 윤리적 입장이 역시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아와 같은 전체를 갖게되면 이제 그 방법이 이래야 된다거나 또는 저래야 된다는 구차한 생각은 쓰잘데 없는 것이 된다. 그렇지만 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 어머니가 쓰는 말과 아이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어휘능력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말로만의 설명이 힘들 때가 없지 않다. 이때 적절한 그림이 활용될 수 있다. 자녀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연령이면 책을 선택하

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 필자는 사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난해 「가르쳐주세요」란 책을 엮어냈다. 그림을 보면서 함께 얘기한다면 한결 쉽고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성교적 행위를 흉내내는 것이 왜 옳지 않은 것인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와의 대화에서 진실되고 적절한 용어를 써야한다는 원칙이 있다해도 부모자신이 성교적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온당하지 않고서는 그 결과가 바람직스럽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어머니가 성을 쾌락적 의미로만 생각하고 있다. 어떤 어머니는 불감증과 같은 성기능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이유로 성교행위를 저주스럽게 생각하여 굴욕적 출산의 도구로서만 이해하기도 한다. 부모자신들의 불화로 성생활이 왜곡되면 그만큼 자녀와의 성적 대화가 편견에 치우칠 것은 당연하다. 부모자신들의 성생활이 원만하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도 절대적이란 것은 결코 사치스런 표현이 아니다. 하물며 부모자신들의 성생활이 비윤리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상상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무질서한 부모의 성생활이 자녀로하여금 사생아를 갖게 할 소지가 많거나 역시 복잡하

이성관계로 난잡한 성행동이 커지는 이유가 그때문이다.

여기에서 성교적 의미를 다시한번 정리를 해 두는 것은 유익하리라 본다.

1. 성교적행위는 이성사이의 성기의 만남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이란 사실.

2.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되 그것이 상대방과 합일되어야 한다는 것.

3. 그것은 두 사람의 윤리와 가치관을 전제로 하므로 그와같은 배경을 부모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

4 성교적 행위는 결과적으로 임신을 하게하므로 그 효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구문제 포함).

5. 성교적행위는 그것만이 갖는 독특한 전염병이 있으므로 그전염경로와 후유증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

6. 성교적 행위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그 파생되는 결과들에 책임을 갖어야 한다는 점.

7. 성교적 행위와 사회질서를 위한 법률적 문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등은 최소한 부모가 숙지하고 있으므로써 언제나라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유연한 밀거름이 되도록

록해야 할 것이다.

1973년 동물생태학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로오렌츠박사가 지적했듯이 「오늘의 젊은이들이 인스턴트섹스를 즐기는 경향이 커졌다」는 것은 이제 바다 저쪽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로 노출하고 있다. 우리들의 어린이가 10대가 되고 다시 20대로 성장할 그때의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그들의 행위의 근본이 되는 지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음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직접 간접으로 10대와의 성적대화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이 표시하는 관심의 초점이 역시 임신, 성병, 성교행위등으로 요약됨을 알수 있다. 안이하게 침묵으로 자녀의 성적문제가 부모가 원하는 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시행착오가 될것이다.

「우리 부모님이요? 말을 안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계시지만 사실은 달라요. 실망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뿐이지요」

이것은 어느 한 소녀의 얘기가 아니라 10대의 대부분이 생각하고있는 그들의 언어이다. 침묵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얻는 결과가 엄청남에도 부모가 그들의 아이들과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 자신의 병폐일 가능성이 크다. <계속>